

2025년 6월 2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관세 불확실성 vs 대선 모멘텀

한국 증시는 1)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2) 미국 ISM 제조업 PMI, 고용 등 메이저 경제지표, 3) 브로드컴 실적, 4) 국내 대선 결과, 5) 2거래일 휴장에 따른 수급 공백 등에 영향 받으면서 2,700pt에서 공방전을 펼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650~2,750pt).

금주에도 트럼프의 관세 행보 변화가 증시의 변동성을 유발요인이 될 전망. 다만, 큰 틀에서는 아직 새로운 관세 불확실성의 대대적인 국면 전환으로 보긴 어렵기에, “관세 리스크 정점 통과 + 6~7월 중 데이터 상 관세 여진 확인 후 대응”의 기준 시나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 국내에 한정해서는 3일(화) 21대 대통령 선거도 중요. 5월 중 코스피가 5.5% 상승하면서 2,700pt대를 터치해본 것도 조선, 방산 등 기존 주도주들의 약진 뿐만 아니라, 신정부 정책 기대감도 한몫 했기 때문. 다만, 대선 직후 재료 소말에 더해, 주 후반 미국 고용 및 국내 휴장 경계심리가 맞물리면서, 대선 수혜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될 수 있음에 유의. 향후 실제 관련 공약 이행 여부에 따라 지주, 은행, 증권 업종들의 주도 테마 지속성이 결정될 전망.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5월 30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주 초반 트럼프 EU 관세 유예 연기 발표, 원달러 환율 하락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한 가운데 대내외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 원전, 증권, 지주사 업종 등이 강세 시현. 이후 주 후반 미 국제 법원의 상호관세 명령 무효 판결, 최근 급등에 따른 일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으로 상승폭 소폭 반납 (KOSPI +4.07%, KOSDAQ +2.57%)

주 초반 국내 증시는 장 전 트럼프 EU 관세 유예 연기 발표, 원달러 환율 하락, 미국발 조선 및 원전 모멘텀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 특히, 주말 간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영향으로 미국 원전주 강세와 연동함에 따라 국내 원전 업종도 큰 폭의 강세 시현. 또한, 대선을 앞두고 증시 활성화 정책 및 기업 거버넌스 개선 공약 기대감을 반영하며 증권주, 지주사도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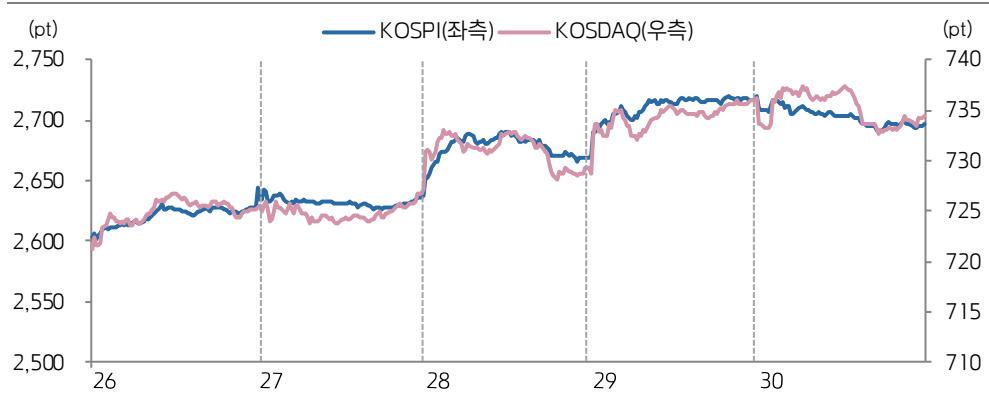
한편, 지난주 시장의 관심도가 집중되었던 엔비디아 실적은 대중국 수출 규제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에도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 특히, AI 관련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73% 증가한 39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매출액 상승을 견인. 금번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로 인해 AI 칩에 대한 견조한 수요를 확인하며 반도체, 전력기기 등 범 AI 테마에 호재로 작용.

주 후반 미 국제법원은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명령이 의회의 권한을 넘는 위법이라는 점에서 무효 판결을 내림. 다만, 이후 해당 판결에 있어 효력 정지 요청을 한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관세 부과가 가능해진 상황. 상호 관세 무효 판결 → 백악관 항소 → 관세 일시 복원 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겪으며 주식시장은 이를 또 다른 형태의 관세 불확실성으로 반영하며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업종별로 증권(+9.37%), 금융(+7.77%), 화학(+6.94%), 건설(+6.51%), 보험(+6.02%)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오락/문화(-3.83%), 운송/창고(-0.55%), 부동산(-0.07%), 기계/장비(+0.33%), 전기/가스(+0.51%)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59억원)은 운송장비/부품(+3,025억원), 제조(+1,418억원), IT 서비스(+991억원), 전기/가스(+715억원)으로 순매수, 기관(+1조 8,241억원)은 제조(+8,269억원), 전기/전자(+6,905억원), 금융(+6,023억원)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종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2025년 6월 2일

KIWOOM WEEKLY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6월 2일	월 미국	ISM 제조업지수 건설지출 (MoM)	5 월 4 월	49.0 0.4%	48.7 -0.5%
	휴장	중국(단오절)			
	발언	파월 미연준의장, 월러 미연준이사 등			
6월 3일	화 미국	제조업 수주 (MoM) 구인건수 내구재주문 (최종치)	4 월 4 월 4 월	-3.1% 7100K -	3.4% 7192K 7.6%(-6.3%)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5 월	50.8	50.4
	휴장	한국(제 21 대 대통령선거일)			
	발언	시카고·댈러스 연은 총재, 쿡 미연준이사			
6월 4일	수 한국	CPI (MoM) CPI (YoY) 근원 CPI (YoY)	5 월 5 월 5 월	- 2.1% -	0.1% 2.1% 2.1%
	미국	ADP 취업자 변동 ISM 서비스업지수	5 월	110K 52.0	62K 51.6
	실적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발언	애틀랜타 연은 총재, 쿡 미연준이사			
	공개	연준 베이지북			
6월 5일	목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5 월	51.1	50.7
	미국	무역수지	4 월	-\$117.3B	-\$140.5B
	회의	ECB 통화정책회의(4~5 일)	6 월	2.15%	2.40%
	발언	쿠글러 미연준이사,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6월 6일	금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 실업률 (MoM) 시간당 평균임금 (MoM) 시간당 평균임금 (YoY)	5 월 5 월 5 월 5 월	130K 4.2% 0.3% 3.6%	177K 4.2% 0.2% 3.8%
	실적	브로드컴, 퀄루레몬, 게임스탑			
	휴장	한국(현충일)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2) 미국 ISM 제조업 PMI, 고용 등 메이저 경제지표, 3) 브로드컴 실적, 4) 국내 대선 결과, 5) 2거래일 휴장에 따른 수급 공백 등에 영향 받으면서 2,700pt에서 공방전을 펼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650~2,750pt).

30일(금) 미국 증시는 5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및 기대인플레이션 개선, 4월 PCE 둔화 등 지표 호전에도,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등으로 장중 변동성 장세를 연출하면서 혼조세로 마감(다우 +0.13%, S&P500 -0.01%, 나스닥 -0.3%).

5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52.2pt vs 컨센 50.8pt)와 1년 기대인플레이션(6.6% vs 컨센 7.3%)의 호조세는 2~4월 중 소프트데이터 발 경기 침체 우려가 과잉 반응이었음을 시사. 하드데이터의 관세 영향은 5월 수치부터 온전히 반영될 것이기는 해도, 4월 헤드라인 PCE(2.1% vs 컨센 2.2%)도 낮게 나온 점은 하드 데이터 발 인플레 상승 불안을 일부 완화시켜준 모습.

그렇지만 이날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보여주듯이, 5월 이후 시장이 상정해왔던 “관세 리스크 정점 통과” 시나리오에 일부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젯거리로 부상 중. 지금 상황을 보면, 29일 미 연방 무역법원(CIT)의 관세 정책 제동 판결을 항소법원이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6월 9일까지는 기존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 6월 9일 이후 해당 법원의 재 판단에 따라 영구적인 효력 정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

이 같은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이 트럼프 관세 행보의 가변성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30일 트럼프가 중국이 5월 12일에 체결한 관세 합의를 상당부분 위반했다고 비판한 것이나, 금주부터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한 것도 같은 맥락. 결국, 상호관세 제동이 트럼프로 하여금 관세 정책을 재차 강경하게 가져가는 자극제가 된 것으로 판단.

금주에도 트럼프의 관세 행보가 증시 변동성의 중심에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의 대대적인 국면 전환으로 보기엔 시기상조. 현시점에서는 “관세 리스크 정점 통과 + 6~7월 중 데이터 상 관세 여진 확인 후 대응”的 기준 시나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

이번주에는 관세 이외에도, 한국 수출, 미 ISM 제조업 PMI 및 비농업 고용 등 메이저 지표 이벤트를 치를 예정.

우선 국내 주말 종 발표된 한국의 5월 수출(-1.3% vs 컨센 -2.7%)은 HBM 수요 확대, D램 고정 가격 상승 등에서 기인한 반도체 수출 호조(+17.2% → +21.2%) 등으로 선방했다는 점은 다행요인. 다만, 대미 수출(5월 -6.8% → 6월 -8.1%), 대중 수출(-3.9% → -8.3%)이 모두 부진함에 따라, 관세 정책의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따라서, 2일 미 ISM 제조업 PMI, 3일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수출 부진세 심화 여부가 주중 지표 상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 또 국내 휴장 기간에 치러질 6일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컨센 13.0만건 vs 4월 17.7만건)도 간과할 수 없는 이벤트이며, 이는 주 중반 이후 국내 증시의 경계심리를 주입하는 재료가 될 것으로 예상.

(다음페이지 계속)

2025년 6월 2일

KIWOOM WEEKLY

국내에 한정해서는 3일(화) 21대 대통령 선거도 중요. 5월 말 코스피가 2,700pt대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방산 등 주도주 약진 뿐만 아니라, 지주, 은행, 증권, 건설 등 대선 수혜주들의 강세도 상당부분 기여했기 때문. 더불어 민주당(상법 개정, MSCI 선진지수 편입 등), 국민의 힘(배당 소득 분리과세, 자본시장법 개정 등) 양당 유력 후보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정책 공약 내세웠다는 점이 대선 수혜주들의 주가 촉매제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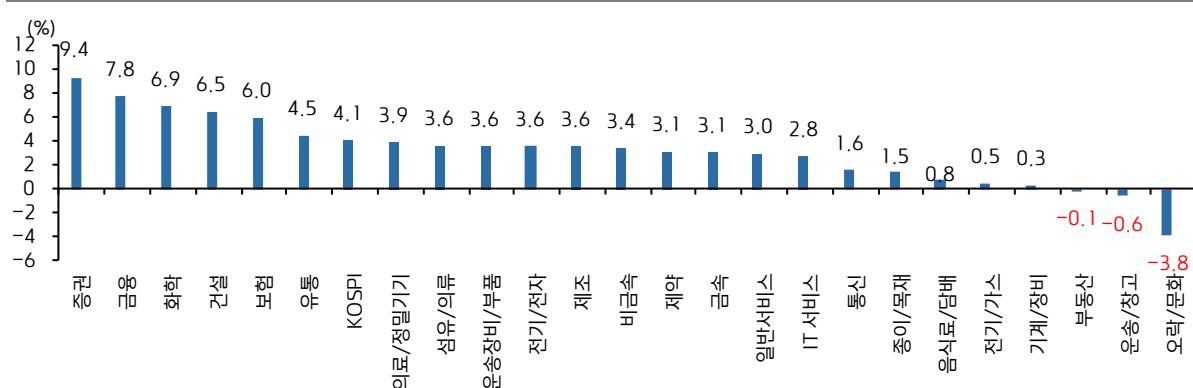
이제는 기대감을 넘어서, 차기 정부가 중시 공약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지가 관건. 유권자 내 투자자 비중 급증(19년 14% → 24년 30%), 기업들의 자체적인 주주환원 니즈 강화 추세 등을 고려 시, 금융주를 중심으로 한 비중 확대 전략은 중기적으로 유효. 다만, 대선 직후 재료 소진 인식 속에 주 후반 미국 고용 및 국내 휴장 경계가 맞물림에 따라,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2,697.67	-0.8	4.1	5.5	12.4
대형주	2,675.13	-1.0	4.0	5.2	12.0
중형주	3,074.03	-0.2	4.9	7.6	15.7
소형주	2,346.44	0.2	3.6	6.0	12.1
코스피 200	359.62	-1.0	4.2	6.2	13.2
코스닥	734.35	-0.3	2.6	2.4	8.3
대형주	1,697.09	-0.4	3.1	1.7	5.2
중형주	659.66	-0.1	2.0	4.1	11.9
소형주	2,438.90	0.0	1.8	2.1	9.5
코스닥 150	1,194.26	-0.1	3.6	2.1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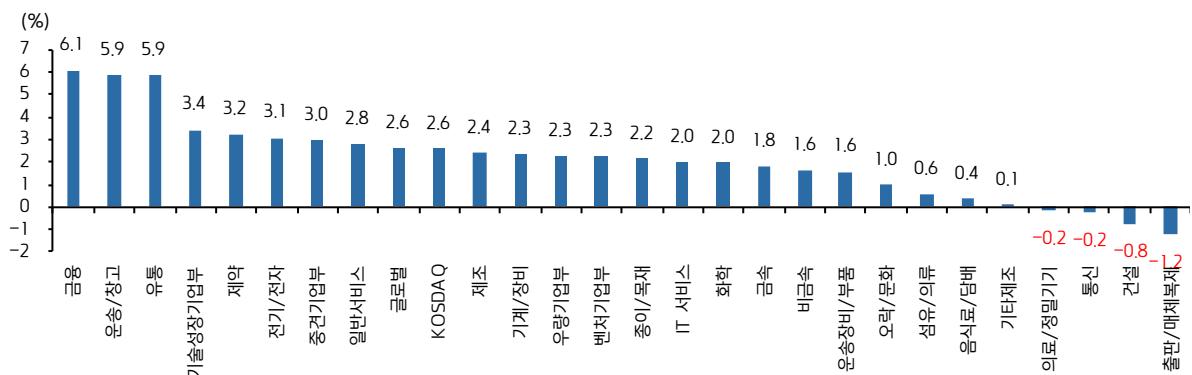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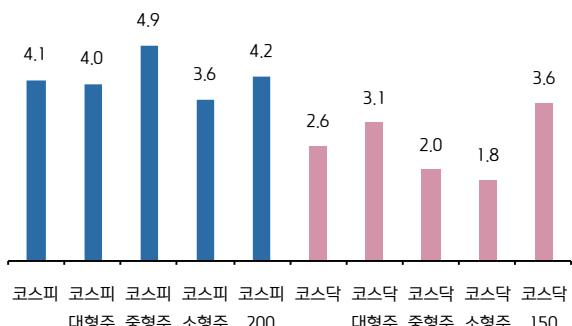
출처: Infor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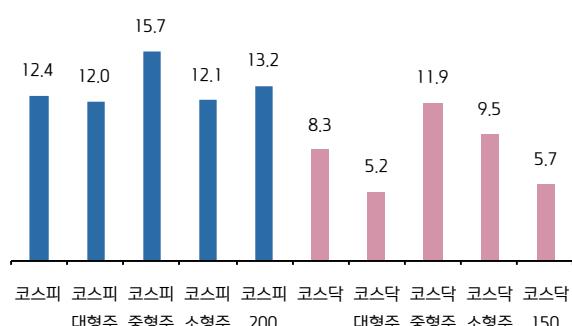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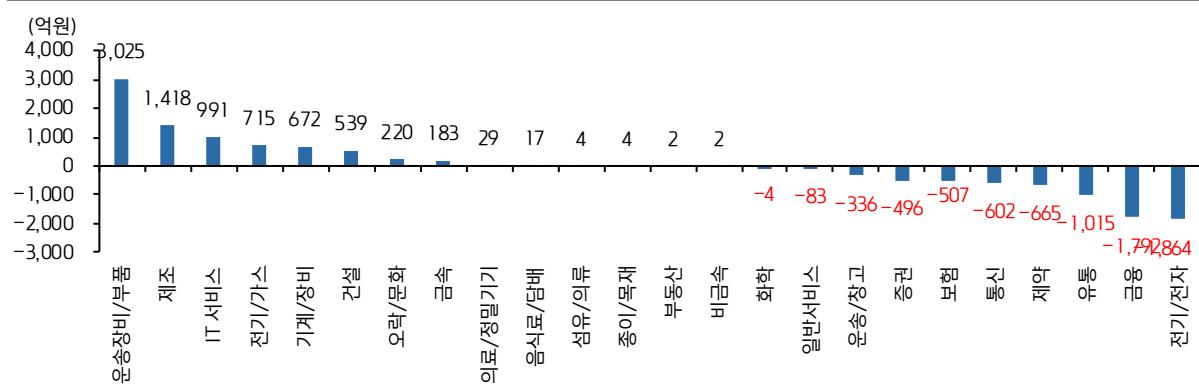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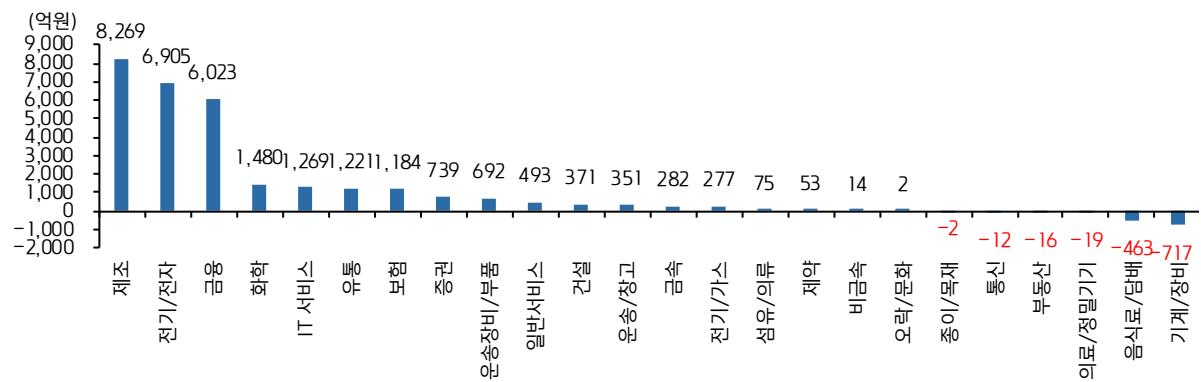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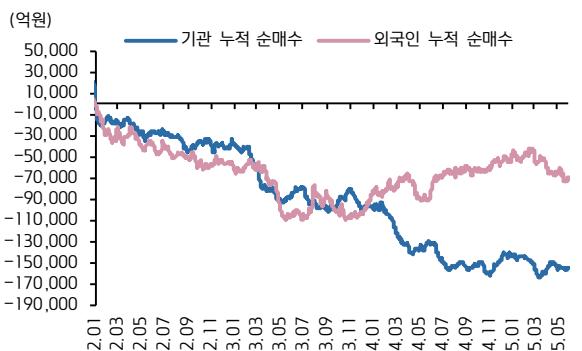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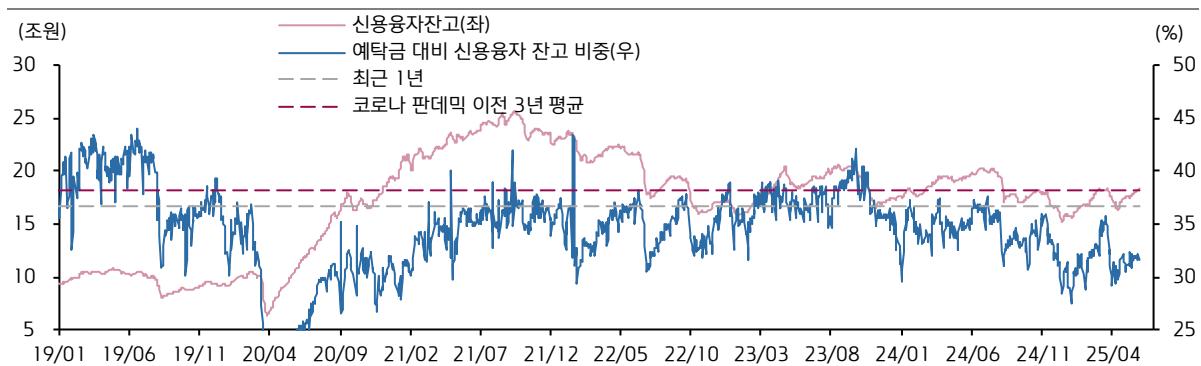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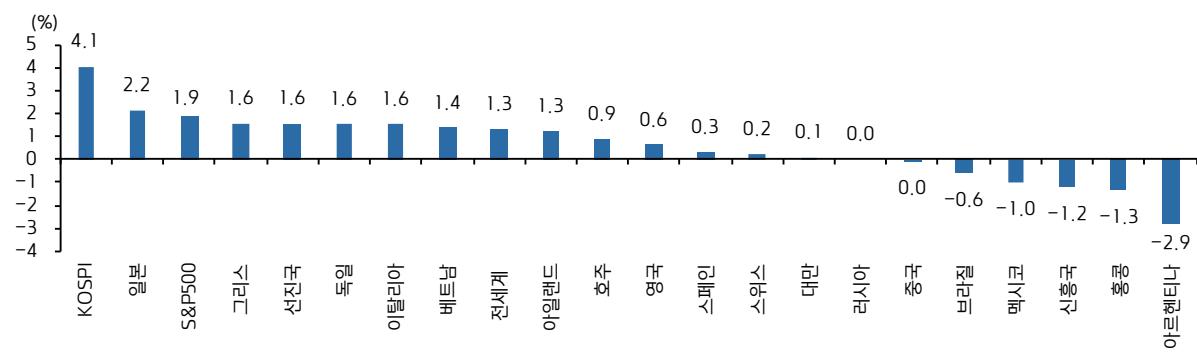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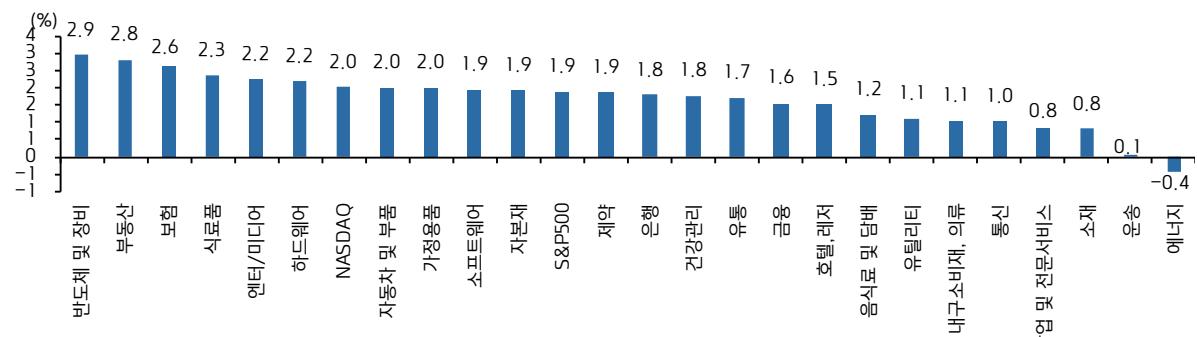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